

[시티 & 피처]

광주공원 ‘평화시위구역’ 지정 논란

경찰, 내년부터 시범운영…시민단체 “집회 통제” 반발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평화시위구역’ 시범 지역으로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아랫광장을 지정,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시위구역 지정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통제하고 탄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 지역안전협의회’에서 광주공원 아랫광장을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화시위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국

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광주공원 아랫광장을 비롯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제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등 전국 8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7~8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평가를 거쳐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도별 수요에 맞게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구역에서 경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준법 집회를

약속하는 주최측에는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유발언대와 간이화장실, 플라카드 게첩대 등 집회에 필요 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요구 사항에 관계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면담과 서한문 전달 등을 주선하고, 언론사에 취재 협조 요청과 인터뷰 의뢰도 해준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교통 혼잡 등을 피하기 위해 시내 외곽에 평화시위 구역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나치게 외곽으로 나가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집회·시위의 효과가

크면서 시민불편이 적은 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회 장소를 지정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평화시위구역 지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도심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공원 아랫광장 주변은 옛 구동체육관 앞 삼가를 철거한 뒤 ‘아시아문화커뮤니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국내 첫 ‘광로봇’ 개발

LED조명·광통신 활용 전자파 없애



레드원테크놀러지 연구소

로, 로봇이 안전하고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기신호로 움직이는 기존 로봇이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 여부와 오작동 논란이 일어온 반면, 빛을 이용한 ‘광로봇’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강점이다.

레드원테크놀러지(주) 로봇연구소는 4일 “기존의 전기신호로 움직이는 로봇 대신, LED조명과 광통신을 연결한 가시광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 네트워크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광(光)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로봇’은 LED조명 및 광통신을 결합시킨 세계적인 선도기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감성조명과 광(光)통신으로 움직이는 기존 로봇이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 여부와 오작동 논란이 일어온 반면, 빛을 이용한 ‘광로봇’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강점이다.”

이 로봇은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08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에서 시연행사를 갖는다. 시연회는 로봇의 자율주행능력과 사람이 로봇을 제어해 지정된 번호를 찾아 경주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광로봇 팔방놀이(Hopscotch) 형태로 펼쳐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제길 미술관 열린 공간



주월동 주민자치센터 앞마당



주택공사 옥상정원

문화수도 ‘숨어있는 아름다운 공간’들

광주시 3곳 선정 시상

광주시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무심는 건축인’은 4일 광주 도심 속 아름다운 숨어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서구 주월동 주민자치센터 앞마당 ▲동구 운림동 우제길 미술관 열린 공간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옥상정원 등을 선정했다.

남승진 심사위원장(동아인재대 교수)은 심사

평을 통해 “주월동 주민자치센터는 공공건축물을 전면 공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아름다운 쉼터와 텁勃勃을 조성한 점이 뛰어났다”고 밝혔다.

또 ‘우제길 미술관’은 전면 공간을 공개된 공간으로 확보하고 뒷부분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예술의 정취를 나누는 공공예술의 전형을 보여줬고, 주공 지역본부 옥상정원은 생태 정원으로 다른 공공시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나무심는 건축인’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건축물내의 공터나 담장, 쌈지공원, 옥상정원 등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시는 선정된 대상지의 사진 등을 13일부터 나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도시건축문화제’에 전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간의 소유자에게는 12월 중 광주시장 표창과 기념품가 수여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광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5일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제1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응집행사를 갖는다.

의용·여성소방대원의 현장대처 능력 향상과 협동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 각 구청장을 비롯 의용소방대원 1천 50명, 소방관계자 250명 등이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겨룬다. 또 그동안 의용소방 활동에 공로가 많은

김장진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총장장지대장 등 대원 5명에게는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시작

광주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3일부터 각 구청별로 시작됐다.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대상자는 지난 2002년 10월 1일~2005년 3월 29일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주민들이다.

광주시의 환급대상자는 2천 573명으로 환급액은 53억 9천 400만원이며, 전남도는 613명 5억 3천만원이다.

환급 신청인은 부담금을 납부한 최초 분양계약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

해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다. 환급 금액은 납부금액에 가산금(연 이율 5%)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급금 지급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시는 내년 3월내에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환급대상자는 목포, 여수, 순천 지역 아파트 주민들로, 현재 각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광주시는 수능시험을 전후한 오는 14일까지 복합영상관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의 복합영상관과 노래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수완지구

본 월드 메디컬 센터 양

지하1층, 지상5층

- ▶ 수완지구 최고 중심상권
- ▶ 일일 교통량 최다 승강장 옆
- ▶ 명·의원 입점 최적위치
- ▶ 수완지구 최고 위치
- ▶ 경쟁력 있는 최저분양가격
(선점의 기회)
-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환영
- ▶ 2009년 3월 준공
- 현장을 방문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반하고 가격에 놀라운 그곳
월드메디컬센터
☎ 062-952-1033, 010-7723-1033

초 고유가시대 난방온수 비용의 근심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기름값 대비 60~80% 절감효과 최우수 보일러 경동,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성!

생산공장 가격으로!!! 딱 1개월 배송설치

난방면적 (m ²)	보일러용량 (㎾t)	보일러온수기 (kw)	한전 불임금	생산공장 가격	현재대리점 가격	한전불임금포함 소비자가격
23~27 (7)	500	6kw	250,400	2,928,600	3,700,000	3,230,000
31~35 (10)	800	10kw	532,000	3,256,400	4,180,000	3,780,000
42~47 (13)	1000	13kw	743,600	3,456,400	4,500,000	4,070,000
49~56 (16)	1200	15kw	884,400	3,615,600	4,650,000	4,320,000
59~69 (20)	1500	19kw	1,166,000	3,634,000	5,680,000	4,720,000

*온수기는 가족수에 따라 용량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100L, 200L, 300L)

심야보일러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밤 10시~아침8시까지)에 낭아는 값싼전기로 난방에 필요한 온수를 90°C까지 미리 데운 대형보온용 온수저장통에 저장한 후 하루종일 내내 지속적으로 난방하는 것을 말하며 **심야 전기요금은 일반전기, 기름값의 1/4에 불과한 저렴한 할인제 요금을 적용합니다.**
※심야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및 누진세가 없습니다.
※심야전기요금은 값싼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므로 값이 싸니다.

★ 심야 전력 보급 사업은 국가의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 9월1일자로 69㎡ 이상 (심야전력 25㎾)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신청 하십시오!

◎ 생산공장 - 전문가가 직접 완벽시공 - 설치고객 ◎

무료상담 080-909-0088
구입문의 010-9469-9373

**속보
주거지역 금년내
심야전기 용량제한됨**

심야전력은 25㎾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날짜는 2009년 3월 31일입니다.

제한되는 날짜는 2009년 3월 3